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장로선출을 위한 특별제직회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후보 명단은 공개 않기로 배수공천 1차 투표만

오늘 찬양예배 후 특별제직회에서는 제 5
대 장로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오늘 투표에는 안수집사 43명, 협동장로 1
명과 1995년 이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
법에 의해 여성도도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된
에 따라 70세 미만인 제 2권사회의 회원들도
후보의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오늘 투표에서 제직들은 장로 후보자 중 10
명 이하의 이름을 적어내면 된다. 투표는 1회
만 실시한다. 당회는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다득표순으로 20명을 정하게 된다.

오늘 선출되어 당회에 인준을 받은 20명의
명단은 득표 순으로 다음 주일 본지에 게재

할 예정이다.

장로선출을 위한 최종 투표는 31일(주일)
공동의회를 통해 하게 된다.

장로 후보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라
야 하며 “본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상당
기간 헌신 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0세 이상
된 자” 라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찬양대회 22일 개최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찬양위원회에서는
가족찬양대회를 개최한다.

가족찬양대회는 22일(금) 오후 7시 - 9시
까지 1층예배실에서 열리는데 가족 단위로
준비한 찬송가나 복음서가 중 자유곡 1곡으
로 출전하면 된다.

심사기준에는 음악성, 가족화합 정도, 자

세, 청중의 반응... 등이 포함되며 심사 결과
에 따라 믿음상, 소망상, 사랑상이 수여된다.
수상자 중 믿음상을 수상한 가족은 찬양예
배 시 성도들 앞에서 특창의 순서도 갖는다.

참가문의 및 신청은 찬양위
원회 혹은 교구 담당 목사에게
하면 된다.



'98 홍해작전 진군준비 완료

98 홍해작전이 6월6일(토)부터 25일(목)까지 20일 간 실시된다.

98 홍해작전 준비위원회는 사령관 이종윤 목사, 참모장 홍정호
장로, 부참모장 최중시 장로와 기획·행정·예배·찬양·동원·
홍보·봉사 등 7개 참모조직을 구성하고, 주제와 행동강령 및 구
체적인 진행사항을 확정하여 진군준비를 완료했다.

매년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로 전개되는 '홍해작전'의 올해
주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17:17)이며 표어는
“일어나자 함께 가자!”(막14:42)이다. 한편 ① 모두 함께 기도하
며 국가 위기 극복한다 ②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 ③
경건과 절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를 행동강령으로 내세웠다.

'홍해작전'은 그 이름에서 보듯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
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했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본을 따라 오늘을 사는 우
리도 현재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해마다 6.25 기념일이 포함된 6월, 특별히 현충일인 6월에 개전
하는 홍해작전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간이
기도하다.

특별히 이번 홍해작전은 국가적 위기와 새 예배당 건축의 대과
제를 놓고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필요를 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 98홍해작전 개요

■ 주 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17:17)

■ 표 어: “일어나자 함께 가자!”(막14:42)

■ 행동강령: 1. 모두 함께 기도하며 국가 위기 극복한다
2. 온전한 헌신으로 주의 전을 세운다
3. 경건과 절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다

■ 기 간: 1998년 6월 6일(토) ~ 6월 25일(목), 20일 간 새벽 5 ~ 6시
1996년 6월 28일(주일) 새벽 5 - 6시 총진군의 날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 역대 홍해작전 주제

연도	기간	주제
1992	6. 6. - 6. 13.(8일간)	새 술은 새 부대에(마9:17)
1993	6. 6. - 6. 20.(15일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994	6. 6. - 6. 19.(14일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사43:19)
1995	6. 6. - 6. 25.(20일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21:5)
1996	6. 6. - 6. 23.(18일간)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렘33:3)
1997	6. 6. - 6. 20.(20일간)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합 3:2)
1998	6. 6. - 6. 25.(20일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요17:17)

가정의 달 설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신명기 6장 4-9절,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신 22:8)고 하신 말씀은 건축양식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가족이 모두 안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라는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분방한 세대에 사는 현대인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난간이 더욱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 성경에 나타난 옥탑층의 의미

성경에는 옥탑층의 용도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용도실과 같은 공간이 있는 옥탑층은 봉사의 자리(수2:6)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옥탑층의 삼대 속에 숨겨 주었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에게 쓰임받는 처소이며 가정에서 우리는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옥탑층은 쉬는 곳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환난을 이긴 다윗이 범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가정은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죄 짓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한편 옥탑층은 어려울 때 피난처요 은신처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의 접근이 어렵도록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터와 같은 요즘 가정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탑층은 기도의 처소입니다(행10:9). 가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봉사의 자리, 쉼터, 피난처, 그리고 기도의 처소로 가정을 세우고 위협에서 보호받게 하기 위해 그 옥탑층에 난간을 설치하라고 하셨습니다.

2. 우리 가정에 세워야 할 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 가정에 세워야 할 난간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정에 영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난

간을 세우는 일입니다(신6:4, 5).

둘째로 진리의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모든 세대 즉 부모, 자식, 손자도 다 함께 지켜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신6:6, 7).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품은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신 6:4-9, 22:8)

이종윤 목사



다. 우리의 자녀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엡6:4).

넷째로 가정을 사랑의 결속과 창조적 교제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간에 나누는 사랑, 용서, 이해로 우리 가정에 파스한 은기가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인내와 친절, 예절과 질서를 배우고 가르치며 일체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결속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의 난간은 든든해집니다.

3.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처럼(눅10:38-42) 만일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박대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리 가정은 주님을 몇 번이나 영접했는지, 얼마나 대접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뭍된 교회를 섬길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순종해야 합니다.

순례자 컬럼

정당성보다는 진실성을

가정은 기득권에 의해 존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아름다워질 수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 본성이 도사리고 있는 한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상대방을 얹매어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은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공동체의 집단인 국가와는 달리 정당성보다는 진실성이 더욱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부부 간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한 그들은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 환경이 변하여 이용할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면 제시된 이유가 얼마나 정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리는 정당해야 하지만 정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상대적 정당성보다는 나약하더라도 진실성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다락방 소개

“다음 주엔 짧게”-그 약속을 매주 여기며

제 4교구 반포 6다락방



매주 부부가 함께 모이는 제 4교구 반포 6다락방 식구들

우리 다락방은 바늘에 실 가듯이 매주 부부가 함께 모여 다락방 예배를 드린다. 모두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목요일 8시 50분 조금 늦은 시각에 모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다락방 예배를 드린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물론 부부애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스런 모임이다.

우리 다락방 식구들을 사랑하자면 모두가

교회 일에 열심인 일꾼들이라는 것이다. 모두들 찬양대, 유아부, 새가족부 등에서 봉사하며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으로도 수고하고 있다.

다락방 예배의 진행은 남자 집사들이 한 주씩 돌아가며 맡고 있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지난 주일 예배의 설교말씀을 중심으로 구역공부 안에서

를 참고해 진행한다. 처음에는 다소 미숙한 점도 많았으나 이제는 제법 매끄럽고 은혜스런게 진행되어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리곤 한다. 다락방 예배의 마지막에는 나라와 교회 특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각 가정을 위한 기도로 마친다.

매주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드리는 이 예배

가 마치면 더욱 활기가 넘치는 시간이 된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있다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 처럼 이런 저런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알뜰하게 준비된 다과를 들며 자녀들 문제나 생활 속의 간증을 나누기도 하고, 때론 사회 문제로 한바탕 토론을 벌이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우리는 일어설 때마다 항상 “아니 벌써 11시가 다 됐네.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찍 끝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실 그럴 생각들이 전혀 없었으니까!

4교구 반포 6다락방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사는 교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구장 김태기 장로, 남다락방장 김규태 집사, 여다락방장 이영희 집사가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다.

(글: 김규태 집사)

스승이신 예수님

문형미(제 4교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을 몸으로 보이신 예수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스승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 곳곳에서 외치시건만

우리의 거리에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쓰레기로 뒹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자의 도를 행하신 주님을 떠올리지만
버리지 못함으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낮아짐의 형식만을 행하지 않도록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온전히 못박게
스승으로 오시옵소서

IMF의 정전된 터널을
예수님 뒤편과
기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사랑과 희생이
침묵으로 흐르게 하소서

■할렐루야찬양대 영성훈련에 다녀와서

“살짝 엿본 광경”

최재춘 집사(제 2교구)

할렐루야찬양대의 영성훈련을 5월 4일과 5일 1박 2일에 걸쳐 덕평리의 동산기도원에서 가졌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두 시간을 넘게 달려서 늦은 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민영수 목사님의 인도로 호세아 12장 1-5절 말씀을 통해 은사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파트장의 인도를 따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가운동을 잘 실천해서 양쪽 찬양대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찰 뿐 아니라 더욱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들리게 하옵소서.”

밤이 깊어가는 것도 잊은 채 새벽 2시까지 발성연습과 찬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중에 지휘자 박정선 집사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특강은 무척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 반 가량 계속된 강의 시간 동안 자세 하나 기운 사람없이 경청하였습니다.

10시 30분부터 공동체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뛰고, 달리고, 뒹굴고... 눈물이 날 정도로 실컷 웃을 수 있었습니다. 5월 5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날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로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속에 풍성히 젖어두고, 뜨겁게 기도하며 신나게 뛰어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도 아닌데 반갑게 맞이해준 대원들에게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간담회 열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한국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목) 국회 귀빈식당에서 3당 정책위의장 및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사설교도소(혹은 민영교도소) 설립안을 제시하고 토론, 협의를 가졌다.

참석자는 위원회 이사장 이종윤 목사, 한기총 대표 회장 지덕 목사, 위원회 임원 그리고 이태섭 의원(자민련 정책위의장), 이상희 의원(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남궁진 의원(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 변정일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장),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이상득 의원(한나라당) 등이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서기인 김상철 장로는 행형법에 민영교도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내용은 행형법 제 2조 제 5항을 신설하여 "(5)교도소, 소년교도소는 종교기관 기타 민간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는 위원



입법에 의한 법률을 개정이다.

법률 개정안이 제안된 후 의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의원들은 민영교도소의 시대적 필요성과 법제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위원회와 국회의 구체적 연구와 협의를 시급히 이어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이종윤 목사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교회가 원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부가 이 점을 인식해 줄 것을 강조했다.

금번 각 당의 정책 책임자가 참석한 결과로 금명간 각 당 정책위의장이 모이는 정례회의에서 의제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치 동문회 총회 18일 개최

한국교회갱신연구원(김치) 동문회(회장 차정은 목사) 총회가 18일(월)오후 5시 30분 강남YMCA 3층 그릴 및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하며 새로 동문이 된 목회자를 환영하는 순서도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동문회는 1994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동문회원의 자격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회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 네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에게 주어진다.

■ 각 부서 이모저모 ■

◇ 베들레헴찬양대= 오르가니스트였던 유혜련 선생이 결혼과 함께 이민을 하게 되어 사임하고, 후임에 홍혜란 선생이 임명되었다. 피아노 반주는 이현주 선생이 맡게 된다.

◇ 초등부=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학생들이 준비한 꽃을 선생님 가슴에 달아드리다. 어린이 회에서는 어린이들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를 준비하여 선생님께 드리기로 했다. 예배 후에는 '선생님께 드리는 글' 과 기도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조대영-



새로 온 직원



정해진 집사가 사무국장으로, 정현숙 집사가 테이프실 책임직원으로 각각 신규 채용되었다.

정해진 집사는 '1937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주) 금성사, 금성계전(주) 등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부인과 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정 집사는 62년도에 세례를 받았으며 그간 소망교회에서 봉사하였다.

정현숙 집사는 1949년 생으로 순천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노동부 복지과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 1982년에 세례를 받았으며 현재 우리 교회 다락방장, 헌금위원, 장년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동정

◆이종윤 목사는 19일(화) 우리 교회당에서 세계선교협의회 동아시 아지역협의회 대표단 환영만찬회를 주관한다. 이 자리에는 대만, 미얀마,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지에서 온 장로교 대표들과 우리 교단 대표들이 참석하여 세미나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늘 점심식사는 홍광범·김진숙 집사, 김명숙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감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감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을 바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3.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 강좌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